



중국 소수민족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 양태



글. 윤기홍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
박사과정

중국 소수민족의 저항과 그들의 생각

“얼마 전 티베트족(藏族)이 또 분신 시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11월 말 베이징 하이덴(海淀)구에 있는 중앙민족대학에서 만난 티베트족 여학생들은 티베트인들의 분신 항거 얘기에 착잡한 표정을 지었다. 2009년부터 최근까지 분신을 한 티베트인들은 124명에 달했다. 분신 희생자들은 중국 통치 반대, 자유 확대, 달라이 라마 귀환 요구 등을 외쳤다. 티베트족 학생들은 “희생자들은 티베트에 대한 억압 정

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분신했다”며 “언론의 자유도 없고 저항의 수단도 없어 분신을 택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중앙민족대학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는 중국인민대학 교정에서 만난 또 다른 티베트족 여학생은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하는 원인은 중국 정부의 억압 때문이다”며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유일한 저항 방법이라고 본다”고 거침없이 말했다. 그 옆의 다른 티베트족 여학생은 “티베트족이 받



2013년 10월 28일 위구르 자치구 독립을 불허하는 중국 정부에 불만을 품은 위구르인 3명이 탄 차량이 중국 베이징 도심 천안문으로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냈다.
(출처: 초천도시보(楚天都市报), 「极端组织称策划车撞天安门 目标还有大会堂」, 2013년 11월 25일자)

는 고통을 매체들이 외면할 뿐 아니라 왜곡하고 있는 상황에서 티베트인들이 분신이라는 폭력적 방법으로 외부에 알리고 있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중관춘 대형 전자상가 거리에서 만난 위구르(維吳爾)인들은 중국인과 확연히 다른 외모 때문에 쉽게 눈에 띄었다. 이들 역시 티베트인들과 비슷한 감정을 드러냈다. 지난 10월 말 위구르인 3명이 중국의 상징인 베이징 천안문(天安門)에 돌진해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 때문이었다. 중국 인터넷 포털에 올라온 천안문 차량 돌진 사건에는 위구르인을 비난하는 누리꾼들의 댓글이 이어졌다. 위구르인을 비롯한 소수민족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의 표현들이 많았다.

한 위구르족 학생은 “그 사건 이후로 매체나 주변에서 위구르인들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위구르인 남성은 “오랜 기간 한족 사람들이 대거 신장위구

르 자치구로 이주해 오면서 위구르인들은 이들에게 경제적 이익도 빼앗기고 다른 곳을 떠도는 신세가 됐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베이징 차오양(朝阳)구에서 위구르 식당을 운영하는 한 위구르족 남성은 ‘천안문 차량돌진 사건’이 위구르족에 끼칠 파장을 우려했다. 공안은 이 사건 이후 베이징 내 위구르인에 대한 신분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그는 “그 사건이 일어난 뒤 손님 가운데 한족의 비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위구르인들이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영업이나 음식점 임대에서 피해를 입지 않을까 가슴을 졸인다”고 덧붙였다. 일 자리를 찾아 고향인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떠나 베이징까지 온 위구르족 종업원들은 “주위에서 위구르인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차별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며 “신장지역에서는 무장경찰의 경계가 더욱 삼엄하다고 듣고 있다”고 말했다.

소수민족 보도.. 中 언론자유 가능 잣대

다수 민족인 한족(漢族)과 55개 소수민족으로 이뤄진 중국에서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최근 중국 뿐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 또다시 관심사로 떠올랐다. 두 민족은 중국에서 ‘뜨거운 감자’인 소수민족의 문제를 상징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통계에 따르면, 13억 5,000만 명이 넘는 중국 인구 가운데 소수민족의 비중은 8.5% 안팎. 이 가운데 위구르족 인구는 981만 명, 티베트족은 541만 명 정도다. 인구 비중은 적지만 두 민족의 자치구가 중국 국토에서 차지하는 면적은 무려 4분의 1을 훌쩍 넘는다. 석유와 천연가스, 광물 자원도 풍부하다. 또 티

베트족과 위구르족 집단 거주지 대부분이 국경 지대여서 지정학적인 중요도 역시 매우 높다. 그러나 소수민족 가운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은 고도의 자치 보장이나 분리·독립을 외치면서 중국 공산당 정부에 항거하고 있다. 동시에 한족과도 큰 마찰을 빚고 있다.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문제는 다민족 통일국가인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국가 분열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미국에 이어 세계 제2강대국으로 발돋움한 중국에 대격변을 몰고 올 수 있는 매머드급 이슈다. 이로 인해 두 민족과 집단 거주지는 ‘중국의 화약고’, ‘중국 소수민족 문제의 뇌관’으로 불리고 있다. 이는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큰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두 민족의 터전인 티베트 자치구와 신장위구르 자치구를 국가의 ‘핵심 이익’으로 삼고 있다. 핵심 이익은 중국이 결코 포기하거나 양보, 희생할 수 없는 전략적 국가 목표를 가리킨다. 대만도 핵심 이익에 속한다. 중국 공산당 정부와 지도부는 핵심 이익인 이들 지역의 문제는 내정으로 어떤 국가든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는 2011년 2월 당시 국가부주석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해 “시짱(西藏, 티베트)은 중국이 절대 포기하지 못하는 핵심적 이해관계다”고 말한 바 있다. 이어 시진핑 주석은 지난 6월 7~8일 미국에서 열린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 양국은 서로 상대의 핵심이익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에 대한 중국 언론의 보도는 전체 소수민족에 대한 당국의

의중과 정책 방향, 그리고 보도 지침을 엿볼 수 있는 창이다. 나아가 소수민족에 대한 보도를 통해 중국 내 언론 자유와 언론 통제·검열의 현주소를 들여다 볼 수 있다.

특히 티베트족·위구르족과 관련한 분리·독립을 요구하는 시위, 분신, 테러, 한족과의 충돌 사태 발생 시,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 내용은 사태의 배경과 상황, 사상자 규모, 파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 정부가 ‘핵심 이익’ 보호를 위해 티베트·신장위구르 지역을 철저히 통제하고 외부와 차단했을 때, 중국 언론매체의 보도에 크게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최근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에 관한 중국 언론의 보도 태도가 극명하게 드러난 대표적 사건들은 △2008년 ‘3·14’ 티베트 라싸(拉薩) 유혈시위, △2009년부터 본격화한 티베트인 연쇄 분신, △2009년 ‘7·5’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 유혈사태, △2013년 10월 말 위구르인의 ‘천안문 차량돌진 사건’ 등이다. 중국뿐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면서



라싸 유혈시위 당시 촬영된 사진
(출처 : 신화통신(新华网), 「拉萨3·14打砸抢烧事件真相」, 2008년 3월 22일자)



2008년 3월 14일 중국 티베트 라싸 시내에 티베트군구 소속 군인들이 경계를 서고 있다.
(출처 : 봉황망(凤凰网), 「快看开上西藏拉萨街头维持秩序的战车与士兵, 2008년 3월 16일자」)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 이슈들이다.

‘3·14’ 티베트 유혈 사태 관련 中 언론 보도

중국이 ‘100년의 꿈’이라 말하던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불과 다섯 달 앞둔 2008년 3월 티베트 자치구 수도 라싸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티베트인들은 3월 14일 티베트 자유와 독립, 달라이 라마 귀환 등을 요구했다. 중국의 이른바 ‘티베트 지우기’에 대한 저항이었다. 시위는 티베트 자치구와 함께 인접한 쓰촨성·칭하이성·간쑤성의 티베트족 집단거주 지역으로 확산됐다. 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주석이 1989년 티베트 자치구 공산당 서기로 재직할 당시 발생했던 유혈 사태 이후 20년 만에 일어난 최악의 티베트 유혈 시위로 번졌다. 중국 정부는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시위에 대한 유혈진압 논란으로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중국 당국은 최루탄만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CNN 등 외신을 통해 라싸 시내

에 총과 탱크가 동원된 것이 밝혀졌다.

시위 발생 초기, 현지인과 관광객 등이 촬영한 현장 사진은 인터넷을 타고 해외로 퍼졌다. 이런 사진은 곧바로 외국 언론사 뉴스 웹사이트와 해외 티베트 인권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초기 외국 언론들이 해외 티베트 인권단체들을 통해 라싸 시위 현장의 소식과 사진들을 전한 반면, 중국 언론매체들은 침묵했다.

중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통해 티베트 사태는 달라이 라마 세력이 배후 조종해 일어났다고 규정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이번 시위가 달라이 라마 집단의 조직적이고 사전 모의에 의한 계략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시작으로 중국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 매체들은 신화통신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티베트 시위자들이 한족을 공격하고 있다며 시위를 폭동으로 몰아가는 보도를 내놓았다. 티베트 시위로 피해를 본 한족 현지 주민의 사연들도 중점적으로 소개했다. 중국 내 한족들은 티베트 시위대를 격렬하게 비난했다.

티베트 시위대에 대한 발포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중국은 3월 20일 신화통신을 통해 처음으로 발포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발포로 인한 사망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화통신은 16일, 쓰촨성의 티베트인 밀집지역에서 폭도들에게 발포해 4명이 부상했다고만 보도했다.

‘3·14’ 티베트 유혈사태와 관련해 중국 정부·언론과 티베트 망명정부 간 발표 내용이 큰 차이를 보였다. 중국 정부가 공식 발표한 사망자수는 16명이었지만, 인도 다람살라에 있는 티베트 망명정부는 99명(라싸 80명, 간쑤성



티베트 국기가 그려진 피켓을 들고 티베트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출처: 환구시보(环球时报), 「外媒: “藏独”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등지 19명)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정부는 시위 발생 7일째인 21일 신화통신을 통해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던 라싸의 현지 화면을 공개했다. 하지만 보도 화면 내용은 시위대로 보이는 사람들이 흥기를 휘두르고 차량을 불태우는 장면만 있었다. 여기에는 군경의 진압장면이나 시위대의 피해 상황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 현지에 대한 정보를 철저히 통제해 티베트인들의 저항의 목소리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했다. 당은 CNN·BBC 등 외국 유력 방송과 홍콩 언론 등에 대한 인터넷 상의 접근도 차단했다. 세계적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YouTube)와 폭로성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에 14일부터 티베트 시위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사진들이 올라오자, 중국은 16일 자국에서 이들 외국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도록 막아버렸다. 아울러 유큐닷컴(Youku.com), 투두닷컴(Tudou.com)을 비롯한 중국 내 유명 동영상 서비스 사이트에서 티베트 유혈 시위 관련 동영상들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통제했다.

동시에 중국 당국은 티베트 라싸를 봉쇄하고서 외신 기자들을 강제로 내보내는 등 보도 통제를 한층 강화했다. 티베트 자치구 정부는 당시 외국 언론 기자뿐 아니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티베트 여행허가 신청서 배포를 중단했다. 나아가 티베트 정부는 3월 17일 불법 취재·보도를 했다고 주장하며 홍콩의 TV·라디오·신문 기자 등 25명을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 인근 쓰촨성 청두로 내보냈다. 이에 중국 외신기자협회는 3월 17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취재 방해 행위는 전 세계에 좀 더 개방적이며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길 원하는 중국 정부에게 도움이 되질 않는다며 비난했다.

그럼에도 공안 당국은 티베트에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독일 주간신문 ‘디 차이트’와 일간지 ‘타게스 차이퉁’, 독일 epd 통신, 오스트리아 주간지 ‘프로필’의 중국 특파원들을 강제로 추방했다. 중국 당국은 이들에게 티베트에서 취재활동을 계속할 경우 중국 체류 허가를 취소할 것이라고 위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북한이 티베트보다 외국 언론매체를 더 많이 허용하고 있다’는 냉소 섞인 비난이나 오기도 했다.

이처럼 비난이 일자 중국 정부는 티베트 사태 발생 열흘 뒤에야 일부 외국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라싸 출입을 허가했다. 중국 외교부는 3월 26일 한국을 비롯해 미국·영국·일본·

러시아·싱가포르·대만 등 10여개 언론사 기
자들로 구성된 외국 언론 기자단의 라싸 방문
을 허용했다. 티베트 시위 사태가 발생한 이후
라싸가 외국 언론에 개방되기는 처음이었다.
그러면서도 라싸에서 외신 기자의 취재 범위
를 제한하고 중국에 유리한 점만을 공개했다.
친강 외교부 대변인은 3월 25일 브리핑에서,
외신 기자들이 라싸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도
록 취재단을 조직했으며 이들은 라싸에서 범
죄행위 피해자들을 면담하고 피해 현장을 직
접 둘러보게 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외국 기자들에게 라싸를 공개
한 데는 티베트 시위 상황을 충분히 장악했다
는 자신감이 깔려 있었다. 또 중국 정부에 대한
외신의 부정적 보도를 최대한 막겠다는 계산
도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中, 반(反) 외국 언론 분위기 부추겨

중국은 티베트 사태에 대한 외국 매체의 보도
태도를 편파적이라고 맹비난하면서 관영매체
를 총동원해 외국 언론에 맞서 선전전에도 나
섰다. 중국 언론매체들은 티베트족과 라싸 유
혈사태를 보는 외국과 외신의 시각을 ‘중국의
분열을 획책하는 음모’로 몰아 붙였다.

티베트 독립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이 전 세
계로부터 비난을 받자, 중국 관영매체들은 서
방 매체들이 오보를 내보내고 있다며 비난했
다. 이를 위해 관영매체들은 외국 언론 보도의
흠집을 찾아 비난을 퍼부었다.

인민일보의 국제뉴스 전문 자매지인 환구시
보(環球時報, 환츄스바오)는 2008년 3월 21일
자에서, 일부 서방 매체들이 티베트 시위에 대
해 사실이 아닌 것을 진짜인 것처럼 보도해 세

계 사람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하고 있다
고 주장했다.

환구시보는 영국 BBC가 3월 17일 자사 웹
사이트에 올린 사진을 문제 삼았다. BBC는 중
국 공안이 간호사를 도와 부상을 입은 티베트
시위자를 돕는 사진을 실었는데, 사진 설명에
는 ‘라싸에 현재 많은 군인이 배치돼 있다’는
설명만 있을 뿐 ‘구조’, ‘응급’ 등의 사실은 무시
했다고 환구시보는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또
영국의 신문 가디언과 미국 CNN 방송 등에서
도 ‘군사·무력 진압’, ‘수 백 명의 티베트인 사
망’ 등의 기사 제목을 쉽게 볼 수 있다면서 이
는 이 사태의 본질과 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
이라고 비난했다.

중국 관영매체의 이 같은 반(反)서방언론 ‘여
론몰이’는 곧바로 위력을 발휘했다. 중국 매체
와 누리꾼들은 서방 언론 보도에 대한 감시할
동 열을 올리면서 외국 언론의 티베트 사태 보



티베트 분리·독립을 외치는 승려들
(출처: 환구시보(環球時報), 「外媒: “藏独” 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2008년 3월 14일 중국 티베트 라싸에서 일어난 시위 사진 : 중국은 미국 CNN이 사진 중 일부뿐만 의도적으로 편집했다고 비난했다. (출처 : 신화통신(新华网), 「拉萨3.14真相」, 2008년 6월 5일자)

도가 대부분 편향됐거나 과장됐다고 비난했다.

연일 중국 방송, 신문, 인터넷에서 티베트인들이 폭력을 휘두르며 경찰과 민간인들을 공격하는 화면만을 본 대다수 중국인들은 서구 언론의 티베트 사태 보도에 진실 왜곡이라며 극도로 분노했다.

중국인들은 CNN이 서구 언론을 대표한다는 상징성 때문에 CNN에 십자포화(편집자 주 : 앞뒤 양옆에서 쏘아서 교차되어 떨어지는 포탄)를 퍼부었다.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미국의 CNN 방송이 보도한 3월 14일 당일 라싸 사진을 대표적 왜곡 사례로 꼽았다. 중국 매체와 누리꾼들은 “CNN은 군용차량이 라싸에 진입하는 AFP 통신의 사진을 전하면서 티베트인 시위대가 돌을 던지는 부분을 잘라내 의도적으로 시위대의 폭력성을 축소했고 군용트럭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를 계기로 중국 인터넷에서는 3월 21일 ‘Anti-CNN’(www.anti-cnn.com)이라는 사이트까지 났다. 중국인들은 CNN이 티베트 사태

를 편파적으로 왜곡 보도했다며 반감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중국인 사이에서는 ‘CNN처럼 굴지마’(做人别太CNN)란 노래와 말이 유행어처럼 퍼졌다. 4월 9일 CNN 시사논평가가 중국은 폭력배와 강패이며 지난 50년 동안 조금도 변한 게 없다고 발언해 중국인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다.

중국 정부도 서방 언론에 대한 중국인의 공세에 대해 암묵적인 지지를 보였다. 외교부는 대변인 성명에서 CNN의 그런 발언은 중국에 대한 무지와 적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중국인민에게 사과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16일 CNN의 베이징지사 책임자를 불러 공식적으로 엄중 항의했다.

미국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인터넷판에서 네팔 경찰이 티베트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사진을 싣고는 티베트 라싸의 상황이라고 잘못 전했다가, 중국 쪽의 지적이나 오자 정정 기사를 내기도 했다.

중국의 3대 관영매체들도 외국 언론 비난



중국에서 만들어진 Anti-CNN(출처: 백과(百科网), 「做人不能太CNN」, 2009년 1월 17일자)

에 가세했다. 중국 관영 CCTV는 뉴스전문 채널에서 연일 CNN의 해당 보도 화면을 반복해 내보내면서 비판했다. 관영 신화통신은 3월 25일, 영국 BBC 방송이 구급차가 나오는 화면을 내보내면서 '병력이 증강되고 있다'고 보도했다며 불만을 표실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报)는 3월 26일, 많은 국가들이 티베트에 대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영국·독일의 일부 언론이 편파적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중국 매체와 대형 포털 사이트들은 누리꾼들의 움직임을 시시각각으로 전하면서 반(反)서방 분위기를 돋우고 여론을 퍼뜨리는 구실을 했다.

그러나 “정보가 차단된 중국인들은 외국 언론의 부정확한 보도만 찾아내 비난하는데 열

을 올릴 뿐 중국 정부의 언론 검열과 통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도 중국내 언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3·14’ 티베트 사태와 같은 시기에 행해진 베이징 올림픽 성화 해외봉송에서도 중국 관영매체들은 티베트 독립세력을 비난하는 동시에 반(反)서방 정서를 부추겼다. 관영매체와 유명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은 베이징 올림픽 성화봉송 특집면을 마련, 해외봉송 과정에서 벌어진 티베트 지지 및 반중(反中) 시위 상황을 사진과 함께 주요 뉴스로 다뤘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성화봉송 해외 구간에 서 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극소수’ 등의 표현을 써가며 최대한 축소했다. 신화통신은 4월 7일 성화봉송 런던구간의 상황과 관련, 수많은 사람들이 극소수 티베트 독립분자들의 성화봉송 파괴 시도에 대해 분노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성화를 봉송하던 중국계 장애인 주자를 공격한 티베트인을 공개수배한 한 중국 누리꾼의 글이 빠르게 퍼지기도 했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영국 런던 성화봉송 구간에서 티베트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의 모습

(출처: 환구시보(环球时报), 「外媒:「藏独」份子欲绝食游行 图谋偷走火炬」, 2008년 4월 17일자)

다. 파리구간에서는 티베트 시위를 무력 진압한 중국에 항의하는 시위대 때문에 성화가 세 차례나 꺼졌다.

관영매체들은 또 ‘티베트 시위대 매수설’ 등을 흘리면서 티베트 세력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 했다. 환구시보는 4월 9일 성화봉송 프랑스구간 시위상황을 보도하면서 프랑스 현지 화교들의 말을 인용해 티베트 독립조직이 시위대 일부에게 돈을 나눠줬다고 주장했다.

중국 언론들이 부추긴 반(反)서방 정서는 중국인들의 극단적 민족주의로 표출됐다. 티베트 시위에 동조한 외국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나타났다. 중국 인터넷과 이동전화 상에서는 미국과 유럽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을 선동하는 글들이 급속도로 퍼졌다. 중국 젊은이들은 4월 13일부터 프랑스계 대형 유통점인 까르푸 불매운동을 벌였고, 19~20일엔 베이징과 상하이로 비롯한 각지에서 까르푸 불매 시위를 펼쳤다. 까르푸의 대주주인 루이비통그룹이 달라이 라마를 지원하고, 프랑스가 티베트 분리 독립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중국 신문과 방송, 인터넷 매체들은 연일 까르푸 불매 운동 소식을 보도해 관심을 촉구시키는 역할을 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는 입장을 내비쳤다.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4월 15일 까르푸 불매운동에 대해, 충분한 근거가 있는 일이며 프랑스 측은 잘못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티베트인 연쇄 분신..외면하는 中 언론

중국의 강압 통치에 항의하는 티베트인 분신이 잇따르고 있다. 티베트인들은 중국의 강압



2008년 4월 베이징 올림픽 태극 방곡 성화봉송 구간에서 중국인들이 티베트 분리·독립을 반대하는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응원하고 있다.

(출처: 신화통신(新华网), 「百余藏独欲破坏曼谷圣火传递 警察迅速控制局面」, 2008년 4월 19일자)

에 항거하면서 티베트 정책의 전환을 호소하고 국제사회에 티베트 문제를 알리기 위해 분신이라는 극단 행동에 나선 것이다. 2009년 2월 27일 20대 승려가 티베트기와 달라이 라마 14세 초상화를 들고 ‘소신공양’(燒身供養)으로 분신한 이후, 지난 12월 초까지 국내외 티베트인 거주 지역에서 124명이 분신했다. 분신 희생자들은 10대 소년에서 아이를 둔 엄마, 농부, 택시 기사, 유목민, 시인, 학생, 식당 종업원까지 나이, 성별, 직업을 가리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

티베트인의 분신이 계속되는 동안 중국 언론매체들은 비보도와 축소·왜곡 보도로 일관해 왔다.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의 분신에 대해 현장 접근과 희생자 개인정보를 철저히 차단하고 있어서 중국 주요 관영매체에서조차 관련 보

CHINA

도를 접하기 어렵다. 중국 언론의 보도만 가지고서는 티베트인의 분신에 관해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게 쉽지 않다.

그 동안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들의 분신 사실도 처음에는 부인했다가 외국 단체와 언론의 발표 이후 뒤늦게 시인하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 등을 통해 분신 소식이 확산하면서 더 이상 감추기가 곤란해진데다, 사안별로 분신 시도가 갖는 정치적 의미를 희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당국은 티베트인 분신에 관해 선별적으로 일부 내용만을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밝히고 있다. 신화통신의 분신 보도는 경찰, 법원 등의 발표 내용과 주장만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반면 분신 희생자와 티베트인 측의 발언과 입장은 빠져 있다.

더욱이 중국 언론매체들은 티베트인 분신 사건을 뒤늦게 보도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국은 분신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즉시 시신을 수습하고 화장을 해 분신 소식을 당분간 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티베트인 분신 항거가 중국 공산당 정부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가 열려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는 3월(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과 11월(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 집중되고 있는 것도 중국 언론의 보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 당국과 언론이 대내외적인 부정적 파급효과를 의식해 의도적으로 보도를 하지 않거나 늦추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신화통신은 지난 3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폐막 이틀날인 18일 오후 외국 달라이 라마 조칙의 선동으로 쓰촨(四川)성에서 분신자살 사건이 발생해 2명이 숨졌다고 보도하고, 그동안 발생했던 분신자살 사례들을 묶어 소개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날짜도 없이 간략하게 보도했다. 이어 다음날 다른 신문, 방송 매체들이 신화통신의 보도를 인용해 티베트인들의 분신 자살 소식을 전했다.

중국 당국은 특히 자국에 불리한 기사를 쓰거나 보도하는 중국 주재 외국 특파원들에게 비자 발급 제한이나 사건·취재 현장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또 문제의 외국 매체에 대해선 중국 내 인터넷 사이트 봉쇄와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이 내건 금기 보도 주제에는 티베트, 신장위구르의 분리·독립 움직임이 들어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티베트인 분신 희생자와 분



2008년 4월 19일자 중국 일간지 현대快报에 실린 티베트 분리·독립 반대 광고 1면 (출처: 현대快报(现代快报), 「盼奥运, 护圣火, 反“藏独”」, 2008년 4월 18일자 1면 광고)

신 배경에 관한 보다 자세하고 객관적인 정보들은 외국에 있는 티베트 인권단체를 통해 외국 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있는 실상이다. 외국 현지 단체로는 인도 소재 티베트 망명정부 외에 티베트 청년의회,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 티베트 독립운동’, 영국 런던에 있는 티베트 인권단체인 ‘자유 티베트’(Free Tibet), 인도 소재 티베트 인권 민주주의 센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조직된 ‘국제 티베트 원조기구’, 국제단체 ‘자유 티베트 학생회’, 티베트 망명단체 ‘자유 티베트를 위한 학생들’, ‘유럽 티베트 청년 연합’(Tibetan Youth Association in Europe, TYAE), 대만의 티베트 단체인 ‘오피스 오브 티베트’, 홍콩 소재 ‘중국인권 민주화 정보센터’ 등이 대표적이다. 티베트 관련 웹사이트 ‘파울(phayul.com)도 티베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주요 통로다. 이들 단체는 티베트족 거주지 내 현지 소식통들을 통해 정보를 얻고 있다.

2011년 8월 8일 달라이 라마로부터 티베트 망명정부 정치권을 넘겨받은 롽사 상가이 총리(중앙행정사 사장)는 지난 5월 8일 “우리는 중국 헌법 테두리 안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요구한다”면서 “티베트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고 어떤 형태의 정치적 저항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티베트인들이 분신을 하고 있으며, 분신 사태를 막기 위해 중국 정부는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라”고 강조했다.

위구르족 · 한족 유혈 충돌사태

신장(新疆)위구르 자치구는 티베트에 이어 ‘중국 제2의 화약고’로 불린다. 한족과 생김새가 판이한 위구르인들은 중국에서 민족과 종교라

는 ‘이중의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전체 인구 약 2,000만 명 가운데 약 940만 명이 위구르족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중앙아시아로 이어지고 천연자원이 풍부한 신장위구르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 한족을 지속적으로 이주시키며 동화정책을 펴 왔다. 이로 인해 한족은 이제 신장지역 전체 인구 2,200만 명 가운데 41%를 차지할 만큼 급증했다. 반면 위구르족은 46%로 줄었다. 신장위구르 자치구 수도인 우루무치시는 한족 비율이 75%에 달하고 있다.

위구르인들은 티베트인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삶의 터전과 부와 경제적 권리를 한족들이 빼앗아 가고 있다며 뿌리 깊은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다수가 이슬람교도인 위구르인들 가운데 일부는 중국 중앙정부가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 문화를 말살하며 한족 동화 정책을 강요한다고 반발하면서 독립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위구르인들의 불만을 극소수 세력의 선동이라고 반박하면서 강경 일변도 정책을 펴고 있다. 이들을 ‘분리주의자’, ‘테러집단’으로 규정해 비난하고 있다.

특히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중국에 귀속된 지 60돌이 되는 해였던 2009년 7월 5일 자치구 수도 우루무치에서 위구르족의 분리 · 독립 요구 시위와 한족과 위구르족 간 대규모 유혈 사태가 일어났다.

이날 오후 우루무치시 인민광장과 해방로 등에 집결한 3,000여명의 위구르인들은 차별 철폐, 신장 지역의 분리 · 독립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시위는 앞서 6월 말 광둥성 사오관(韶關)의 한 완구공장에서 벌어진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 우루무치시에서 위구르인 시위대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출처: 중국중앙TV(CCTV.com), 「乌鲁木齐“75”事件中死亡人数升至140人」,
2009년 7월 7일자)

한족과 위구르족 종업원 간 패싸움으로 위구르인 2명이 사망한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시위대는 당시 한족 직원들이 위구르족 직원들을 집단 폭행할 당시 출동한 경찰이 개입하지 않아 위구르인들의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시위대는 1만 여명으로 불어났다. 경찰은 시위가 거세지자 무력으로 진압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집계로만 197명(한족 140명 가량)이 숨지고, 1,700여명이 다쳤다. 이는 1989년 '6·4 천안문 유혈 시위진압'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최대의 유혈사태였다. 이날 시위 이후 한족들이 위구르족에 보복하겠다고 거리로 나서고 이에 다시 맞서는 위구르족들의 잇따른 시위로 민족 대결 양상으로 치달았다.

우루무치 유혈사태 발생 당시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참석 중이던 후진타오 주석은 급거 귀국했다.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내 문제로 해외 방문 중 급히 귀국한 것은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중국 정부는 우루무치 시위에 대해 신장위구르 분리·독립 세력의 사전 계획설을 주장했다. 이에 위구르족 해외 망명인사들은 중국 정부의 한족 우대정책과 한족의 경제적인 침탈 등으로 시위가 촉발됐다고 반박했다.

우루무치 유혈시위 사망자 발생 원인을 놓고 중국 언론과 위구르족 간 견해차가 컸다. 관영 신화통신은 위구르인 시위대가 흉기를 들고 행인들을 공격하고 차량을 불태우며 과격한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위구르인들은 시위는 평화롭게 시작됐으나 경찰이 과잉 진압하고 총을 쏘 폭력성을 띄게 됐다고 주장했다.

中 우루무치 유혈시위..외국 언론은 개방·인터넷은 통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위구르족 유혈사태에 대해 티베트족 유혈시위 때와는 다른 언론 정책을 취했다. 자국 내 온라인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한 반면, 외국 언론 취재는 이례적으로 개방하는 이중적인 언론정책을 펼친 것.

7월 5일 우루무치시에서 시위가 시작된 직후 중국 정부는 이전 시위 때와 마찬가지로 먼저 신장 지역의 인터넷과 국제전화를 차단했다. 당국에 불리한 내용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였다. 중국 내에서는 정보에 대한 철저한 통제가 이뤄진 가운데 트위터와 페이스북 접속은 차단됐고 인터넷 검색 사이트에서 정부의 검열을 거치지 않은 시위 관련 내용들은 모조리 삭제됐다.

방송에서는 위구르족들이 다수 인종인 한족을 공격하는 장면이 계속 보도됐다. 중국 매체



우루무치 유혈사태 사망자 소식을 전하고 있는
신장위구르 자치구 현지 일간지 신장일보
2009년 7월 7일자 1면
(출처: 신장일보(新疆日报), 「乌鲁木齐“7·5”事件中死亡
人数达到140人」, 2009년 7월 7일자)

들은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의 보도들
을 쏟아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시위 진압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중 외국 기자단을 우루무치로 초
청했다. 외국 취재진이 묶는 우루무치 도심 호
텔에 프레스센터까지 마련해 줬다. 중국 당국
은 외국 기자단에게 중국의 입장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한편, 중국 국영방송이 촬영
한 시위 당시 상황을 담은 CD를 제공했다. 또
기자회견도 열어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정
부 관계자의 감독 아래 단체로 시위 현장을 취
재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대응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조치를 취한 것이었다.

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과거 신장위구르
에서 일어난 시위나 1년 전 3월 티베트 자치

구 수도 라싸에서 일어났던 대규모 시위 때 외
국 언론의 취재를 철저히 차단했던 것과는 대
조적이었다.

중국 정부의 외국 언론에 대한 이례적인 개
방 조치는 1년 전 티베트 사태 때 인터넷의 위
협성과 파급력을 경험한 데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다. 티베트 사태 당시 외국 기자들의 티베트
출입을 철저히 봉쇄해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중국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티베트인과 단체들은
무장경찰의 진압 장면을 이동전화기로 촬영해
외국에 내보냄으로써 중국 당국의 전통적인
방식의 언론 통제를 무력화시켰다.

따라서 중국 당국은 적절한 통제 아래 일부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침묵을 지키다 나중에
검증되지 않거나 불리한 내용이 확산되는 것
보다 낫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중국 내 언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외신기자클럽은 우루무치
사태 발생 이틀 뒤인 7월 7일 발표한 성명을 통
해 신장위구르 자치구 시위 취재에 나선 외국
방송기자들이 몇 시간 동안 구금되고 장비를
압수당했으며 카메라가 파손되기도 했다고 밝
혔다. 외신기자클럽은 또 신장지역 시위를 취
재하는 기자들을 구금하고 방해하는 것에 개
탄을 금하지 못한다면 중국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에 필수적인 정보의 자유로운 흐
름을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중국은 기자
들이 제한 없이 취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
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의 친강 대변인은 당시 일
부 외신기자들이 규정을 어긴 것으로 알고 있
다고 반박했다. 이어 중국은 국내외 기자들이

CHINA

시위 사태를 취재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많은 기자들이 신장지역에서 중국 법률과 현지 규정에 따라 취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중국이 신장지역의 인터넷을 차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친강 대변인은 외부의 분리주의 세력이 인터넷이나 이동전화를 통해 시위를 선동하며 사회불안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中 소수민족 문제..정보 투명성 제고 필요

중국에서 소수민족 문제는 중국 국가의 핵심 이익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 잡았다.

앞으로 중국에서 소수민족의 분리·독립 시위가 발생할 때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이를 국가 위기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는 관측이 중국 내에서도 우세하다. 소수민족의 분리·독립뿐 아니라 고도 자치를 요구하는 주장을 국가 분열 책동으로 규정해 통제

해 나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기존 티베트·신장위구르 관련 정책을 바꿀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중국 내 소수민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는 제2, 제3의 티베트·우루무치 사태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중국 내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다.

중국 소수민족의 문제는 종교 자유 억압, 소수민족 문화·언어의 ‘한족 동화’, 다수 민족인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민족적인 차별 및 부의 불균형 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또 다른 소수민족 사태를 피하려면 한족과 위구르족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티베트족과 위구르족을 포함한 소수민족 관련 문제와 충돌사태에서 중국 당국과 언론이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언론이 그 동안 행해 온 비보도, 축소·왜곡·편파 보도가 소수민족 문제와 사태를 키우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정보의 공개와 개방은 사태의 진상을 알려줄 수 있어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다. 이는 동시에 다수 민족인 한족과 소수민족 간의 오해를 줄여줄 수 있다. 더욱이 중국이 여론의 ‘획일화’에서 ‘다양화’로 옮겨 간다면, 소수민족 간 갈등과 차이를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중국 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중국 공산당 정부, 관영·민영 언론이 앞으로 소수민족 관련 문제에 어떤 변화를 보일지 보다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족 여성과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출처 : 중국 바이두(百度·Baidu.com) 웹사이트 캡처)